

# 한우

## ‘민족한우’ 자긍심 심은 소통의 축제 ‘한우인의 날’ 행사 성료

한우 할인판매 · 요리경연 다양한 체험행사 호응, 생산자 행사 넘어 소비자와 공감 ‘국민 축제’로

1만여 한우인이 지난 9월 20일 충북 충주에 모였다. 한우인의 날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남배)는 제11회 한우인의 날 및 제13회 전국한우협회 창립기념행사를 ‘국민과 함께하는 5천년 숨결의 민족한우’라는 주제로 지난 20일 충주시 탄금대 세계무술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남배 전국한우협회 회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이종배 충주시장을 비롯해 한우인 1만 여명이 참석했다. 오후 2시 개회식으로 시작해 한우시식회, 국민과 함께하는 장기자랑,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이날 사전행사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소고기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한우요리경연대회’가 진행되었으며 물가상승으로 인해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을 위해 한우를 20% 이상 할인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가 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부대행사로 축산 기자재 전시, 한우사진전, 한우 홍보관이 상설 운영됐다.

한편 행사기간동안 충청북도와 충북농협 주최로 ‘충북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과 ‘제5회 충북 한우사랑 축제’가 열렸다. 충북도내 29개 생산 및 가공업체가 참여하여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

고기, 우유, 계란 등 축산물을 전시하고 특별 할인 판매 행사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몰려 큰 성황을 이뤘다.

전국한우협회 김남배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천년의 역사를 지닌 한우를 지키고 있는 농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존경스럽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한우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고 있는 국민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우인의 날을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최종인 · 이동일 기자 2012. 09. 24

# 양돈

## 자조금 효과로 한돈 4만2천톤 더 소비

자조금 1원당 21.025원 추가수익 거둔 셈, 미디어 활용 소비 홍보사업 가장 효과적

지난해 양돈농가들이 납부한 한돈자조금 1원이 21.025원의 추가수익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실시한 2011년도 한돈자조금사업 운용효과 분석 및 향후 사업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조사기관 뉴프로텍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가진 보고회에서 계량적 모형을 통한 한돈자조금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추정한 결과 한돈자조금 사업에 힘입어 지난 한 해 동안 4만2천95톤의 국산돼지고기가 더 소비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은 55만9천511톤이었지만 한돈자조금사업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51만7천416톤에 그쳤다는 것이다.

뉴프로팁은 추가소비량을 지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두당수취가격에 적용,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2천883억원에 달했으며 이 금액을 지난해 한돈자조금사업 집행금액 137억1천80만원으로 나눠 자조금의 추가수익이 얼마인지 산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양돈농가들이 납부한 자조금 1원당 추가수익은 21.02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거출을 전제로 이뤄지는 정부 지원금까지 감안하면 40.357원으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뉴프로팁의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자조금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해 냈다”며 “지난해 FMD 살처분으로 인한 국산돼지고기 공급 감소에 따른 이상가격 형성 등 각종 환경변수도 감안, 신뢰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개별사업별 한돈 소비 촉진 효과의 경우 TV/라디오, PPL, PR 등을 이용한 소비 홍보 사업이 58.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 사업(16.4%), 농가 교육 및 정보 제공 사업(14.1%), 유통구조개선사업(10.7%)이 그 뒤를 이었다.

저지방부위 소비 촉진의 경우 소비 홍보 사업 효과가 72%로 가장 높았으며 이 중에서 PPL(27%)과 옥외광고 및 온라인 배너광고(26.4%)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2012. 09. 12

# 양계

## 제10회 구구데이 페스티벌 개최

양계관련 단체 모두 참여



2012년 구구데이 페스티벌이 지난 9월 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닭 먹고 알 먹9, 건강도 올리9'를 주제로 열렸다.

농협과 가금수급안정위원회(위원장 이환원)가 주관하고, 처음으로 양계협회와 계육협회, 토종닭협회, 계란유통협회, 난가공협회, 닭고기·계란자조금 등 양계관련단체가 모두 참여해 공동 주최한 구구데이 페스티벌은 올해 열 돌을 맞았다. 이날 행사는 농식품부와 양계관련조합장협의회, 가금학회가 후원했다.

이날 이환원 위원장은 개회사서 “양계산업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도 계란과 닭 소비량이 현저하게 적다. 가격하락으로 고통 받는 양계 농가를 돕고, 완전식품인 계란과 다이어트식품인 닭고기 소비로 국민건강도 챙기자”고 말했다.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은 환영사서 “우리 땅에서 난 농축산물이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다. 우리 농업이 건재해야 국민건강과 국가를 지킨다”고 강조했다.

권찬호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사서 “고품질 양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가 소득안정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정병학 계육협회장, 김연수 토종닭협회장, 강종성 계란유통협회장, 안영기 계란자조금위원장, 이흥재 닭고기자조금위원장 등 양계단체장, 한재용 가금학회(서울대 교수)과 김정주 건국대 교수 등 학계인사, 김재옥 소시모 회장, 전성자 소비자교육원장, 안승춘 식생활개발연구회장 등 소비자단체장이 참석했다. 축산관련기관과 단체에선 양창범 축산과학원 부장, 최형규 품질평가원장, 이승호 축단협회장, 김남배 한우협회장, 조균환 양봉협회장, 정유환 양록협회장, 이재용 종축개량협회장, 조남조 사료협회장이 참석했으며, 오정길 전국양계관련조합장협의회장, 김용철 농협목우촌 사장도 참석했다.

구구데이 페스티벌에서는 몸보신 닭요리, 계란요리 공모전에서 당선된 요리 6점과 초대형 계란프라이 실물요리가 전시됐으며, 닭고기와 계란요리 시식회도 진행됐다.

양계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했으며, 제품 할인판매도 실시됐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12. 09. 10



낙농가들이 체험목장과 유제품 판매 등으로 소득증대를 찾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목장형 유제품 생산과 체험목장 운영을 통해 낙농산업이 과거 우유 생산 위주의 1차 산업에서 제품 가공(2차 산업)과 체험목장 운영(3차 산업)까지 겸하는 6차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에서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유제품 생산기술을 개발, 해마다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유제품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제품 홍보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연구회와 공동으로 자연치즈 콘테스트를 열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유제품 생산 기술 교육은 현재까지 약 500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낙농진흥회에서 낙농체험목장 인증을 받은 농가수는 2004년 1개소에서 2012년 24개소로 늘었으며, 체험목장 방문객 수도 2004년 4천 명에서 2012년 40만 명으로 늘었다.

경기도 여주에서 체험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은아목장(대표 조옥향)의 경우 2011년 2만여 명이 목장을 방문했으며 이로 인해 연간 5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일부 목장에서는 유제품 생산과 판매, 체험을 병행

낙농

낙농업, 목장형 유가공에서 해답을 찾는다

체험목장 운영과 유제품 판매로 낙농가 소득 증대

해 추가 수익을 내기도 한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또나따 목장(대표 양의주)의 경우 2009년부터 목장체험과 유제품 생산으로 우유와 치즈, 발효유 8만 5천kg을 생산, 2억 475만 4천 원의 조수입을 올렸다. 2011년에는 점차 생산량이 늘어 11만 1319kg의 제품을 생산, 2억 6,524만 1천 원의 조수입을 올렸다.

전남 영광의 유레카 목장(대표 김수영)은 발효유와 자연치즈를 생산해 생협이나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연간 1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국내 1인당 우유 소비량은 2000년 30.79kg에서 2011년 26.88kg으로 조금씩 줄고 있는 반면 치즈 소비량은 2000년 0.94kg에서 2011년 2kg으로 2배 정도 늘었다.

미국의 경우 1인당 치즈 소비량이 15kg, 유럽이 20kg 정도 소비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소비량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축산물이용과 정석근 연구관은 “기존 원유 납유시 1kg당 1,067원을 받지만 원유 1kg으로 100g의 치즈를 만들면 7,000원 정도를 받아 7배 정도의 부가가치가 향상된다”라며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발효유제품을 만드는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브 2012. 09. 12



## 벌꿀 대풍작에 양봉농가 ‘함박웃음’

### 가뭄 덕에 벌 활동 활발

지난 몇 년 간 이상기온 등으로 저조했던 벌꿀 생산이 올해는 풍작을 이뤄 양봉농가마다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올해 양봉농가의 꿀 생산량은 군(통) 당 35-40kg에 달한다. 보통 한 군(통) 당 25-30kg 정도 나오면 풍작으로 볼 때 올해는 그야말로 대풍년을 기록한 것이다.

올해 벌꿀 생산량은 전국적으로도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아카시아 꿀은 예년 평균보다 5천t 가량 늘어 2만t 수준까지 생산량이 늘었다. 잡화 꿀을 포함하면 꿀 생산량은 2만6천t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래 부진했던 양봉업은 지난해부터 안정을 찾고 있다. 최근 4-5년 간 잦은 폭설과 계속되는 개화기 우천, 저온현상 등 이상기후로 꿀벌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집단 폐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봄부터 개화기간이 길어지면서 꿀 생산량은 차츰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최악의 가뭄이 일반 농작물에는 많은 피해를 입혔지만 벌꿀을 생산하는 꿀벌 활동에는 최악의 조건을 제공, 벌꿀 생산량은 풍년이라 불렀던 작년보다 더 늘었다.

별꿀 양이 크게 증가하면서 도매가가 예년보다 20% 정도 떨어지는 등 가격은 다소 하락했다.

하지만 생산량이 급증한 덕에 농가 소득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양봉협회 박병철 포항남구지회장은 “수년 간 이상기온으로 손해를 많이 봤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별꿀 생산량이 늘어 양봉농가들 수입이 괜찮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별꿀 채취가 활발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농가들의 시름을 덜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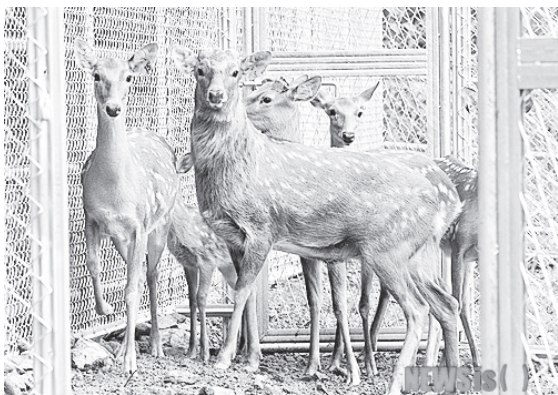
경북일보 김정혜 기자 2012. 09. 12

양  
록

### 인제군, 대륙사슴 복원사업 본격 추진

강원 인제군 대륙사슴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제군에 따르면 지난달 대륙사슴 증식을 위한 시설 설치공사와 임시계류장을 준공하고 대륙사슴 6마리를 들여와 13일부터 사육을 시작했다.



이에 인제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이 모니터링하며 대륙사슴의 증식과 자연 재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정밀한 검사와 국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이곳에서 증식된 사슴이 서식에 적합한 설악산 등을 시작으로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모태로서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사)사슴생태운동본부는 국내에서 외모 형태적으로 대륙사슴에 가까운 원종을 찾아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륙사슴으로 판명된 사슴 6마리를 확보했다.

또 지난 5월14일 대륙사슴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조를 위해 한국양도양육조합과 MOU를 체결하고 원종확보에 노력해 왔다.

사슴생태운동본부 오정진 회장은 “이번 사슴 사육 시설 및 모니터링 사업의 시작은 멸종됐던 대륙사슴 복원에 획기적이고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멸종된 우리 꽃사슴의 복원이란 목표가 한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NGO와 함께 멸종된 우리 꽃사슴의 생태적 복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제군은 지난 2002년부터 10여년간 대륙사슴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사슴의 원종확보를 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뉴스스 한윤식 기자 2012. 09. 16